

중동 위기에 석화업계 비상... '불가항력' 통보 줄이어

여천NCC 이어 롯데케미칼·LG화학·한화솔루션 경고 "원료수급 차질...전쟁 장기화 시 공장 가동중단 사태"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기지인 여천NCC이 중동 사태로 공급 불가를 뜻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한 데 이어 다른 업체들도 불가항력 가능성을 잇따라 통보하며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최근 고객사들에 공문을 보내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및 물류 환경의 불확실성 탓에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한화솔루션이 생산하는 폴리올레핀(PO) 계열 등 일부 제품에서 이 같은 상황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항력은 전쟁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제품 공급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면책을 위해 발동하는 조치다. 공급사는 고객사에 필요한 물량을 제때 공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즉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중동 위기 고조

로 인해 원료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아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불가항력 단계도 아니지만 향후 공급 차질 리스크에 대해 고객사에 미리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천NCC가 처음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한 이후 국내 업계에서는 불가항력 가능성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롯데케미칼, LG화학 등이 일부 제품에 대해 불가항력 가능성을 고지했다.

지난해부터 구조재편 중인 석화업계는 설비 통합과 가동 중단 등을 통해 생산량을 감축하던 중으로, 비축한 납사 재고량도 적어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공급되는 납사는 절반이 수입산이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것으로, 수입산의 절반가량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국내 도입 원유의 약 70%는 중동산이다.

비축분이 떨어지는 다음 달에는 줄줄이 공급 불가항력 선언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전쟁이 장기화하면 공장 가동 중단 사태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업체들이 줄줄이 불가항력 가능성을 통보한 것도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불가항력을 넘어 공장 가동 자체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은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대한교통학회 춘계학술대회' 지회 세션을 공동 개최하고 호남권 광역교통 체계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 교통 인프라 재편...호남권 경쟁력 높여야"

광주·전남·전북연구원, 교통학회 학술대회 세션 개최 "서해안철도·달빛철도 구축·호남고속철 증편 등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호남권 교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과 호남 고속철도 운영 효율화 등 광역 교통 인프라 재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전북연구원은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대한교통학회 춘계학술대회' 지회 세션을 공동 개최하고 호남권 광역 교통 체계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션은 호남권이 직면한 교통 현안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교통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전남·전북 3개 광역권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

고,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날 현장에는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을 비롯해 권영석 전주대 교수, 장준석 광주연구원 박사, 김상엽 전북연구원 박사, 박용우 광주연구원 박사,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 이성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 김원철 충남연구원 박사, 박태훈 전남연구원 박사, 임광권 송원대 교수 등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 대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 기반 구축과 관련한 광역교통 SOC 확충 방안과 전북권 광역교통 이슈와의 연계 전략, 호남고속철도 예매난 해소 를 위한 증편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장준석 광주연구원 박사는 "전

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통 기반 구축을 위해 호남권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등 남북축과 대구-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등 동서축 교통망 구축을 통해 호남권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남 영평에서 빛그린국가산단과 향후 조성될 미래차국가산단, 광주송정역 등을 잇는 '광주 신산업선' 구축 방안도 제시됐다. 산업 거점과 주요 교통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과 교통의 연계를 강화하고 권역 내 생활권 통합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용우 광주연구원 박사는 호남고속철도 예매난 해소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주말 좌석 공급 확대와 익산 종착 열차의 광주송정 연장 운영 등을 검토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호남선 서늘열차

도입과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화 완료 이후 신규 차량 우선 배치 등을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호남권 광역교통망이 갖는 현실적 제약 요인을 진단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절된 교통망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간 정책 공조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호남권 광역교통망의 유기적 연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통 SOC 확충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예매난 해소, 열차 증편 등 철도 서비스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유가 급등 대응' 45억 지원

전국 최대 규모...경유·등유·휘발유 순 차등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급등하는 유가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자체 재원 300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유류비 지원책을 마련했다. 면세유 할인에 250억원, 농협주유소 할

인에 50억원을 각각 배정해 농가의 영농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원책에 따라 전남지역에는 면세유 할인 지원액 가운데 가장 많은 45억여 원이 배정된다. 면세유 할인 물량은 농업 현장에서 사용량이 많은 경유를 중심으로 등유, 휘발유 순으로 차등 배정되며, 농가

의 한 달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농협은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전남농협은 유류비 지원이 신속하게 영농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광주교통공사는 12일 대한교통학회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교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광주·전남 지역 교통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교통공사-대한교통학회

광역철도망 등 교통현안 해결 '맞손'

광주교통공사는 12일 대한교통학회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교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광주·전남 지역 교통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광주·전남 교통 현안 공동 연구 및 해결 △지역 철도 노선 발굴과 정책 제안 △교통 전문가 교류 △학술대회·세미나 공동 개최 등이 담겼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과 국가 균형발전 흐름에 맞춘 광역권 교통 연계 사업 발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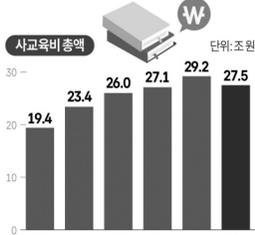
공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교통 전환을 위한 광주교통공사의 역

할'을 주제로 특별세션도 열었다. 세션에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황과 기

대효과, 무선급전 트램 기술 개발, 모바일 지역 교통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분석한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과 특별세션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과 혁신 기술을 현장에 적극 접목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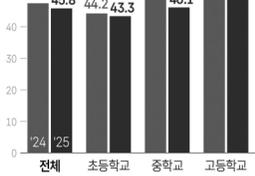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의 학생 약 74,000명 대상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체 학생 기준



감소세 돌아선 사교육비...전남 1인당 31만원 최저

서울 절반 못미쳐...광주는 특별·광역시 최하위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던 초·중·고 등학생 사교육비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전남의 사교육비가 전국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전국 3000여개 학교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2000원으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전남은 30만9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세종 등 3곳이 전국 평균(45만8000원)보다 높았다. 서울이 66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49만9000원), 세종(45만8000원)

수소로 돌아섰다.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4년보다 1조7000억원(5.7%) 감소했다.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2021년(23조4000억원), 2022년(26조3000원), 2023년(27조1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02만명으로 전년 대비 12만명(2.3%) 줄었다. 학생 수 감소보다 사교육비 감소폭이 더 컸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7.9% ↓)에서 가장 컸다. 고등학교는 4.3% 내렸고, 중학교는 3.2% 줄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 줄어든 45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43만3000원(2.1% ↓), 중학교 46만1000원(5.9% ↓), 고등학교 49만9000원(4.0% ↓)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줄었다. 연합뉴스 기자 djawody0316@

코스피, '네 마녀의 날' 약보합

개인 2조3000억원 매수 방어

선물·옵션 등 시 만기일인 '네 마녀의 날'을 맞은 12일 코스피가 큰 변동성 없이 약보합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2.30p(0.75%) 내린 5567.65로 출발해 26.70p(0.48%) 내린 5583.2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장중 한때 5629.07까지 올랐지만, 다시 하락세에 머물렀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인 각각 1533억원과 2조2781억원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2조346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방을 지지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주가지수 선물·옵션

과 개별 주식 선물·옵션의 만기일이 동시에 겹치는 네 마녀의 날이었다.

보통 네 마녀의 날에는 파생상품과 관련해 숨어있던 험물 주식 매매가 정리돼 물로 쏟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중동 전쟁과 더불어 네 마녀의 날까지 겹쳐 변동성 확대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개인의 강한 순매수가 이를 제한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1310억원과 5449억원으로 매수 우위를 보인 반면, 외국인인 6054억원 순매도했다. 연합뉴스 기자 djawody0316@